

西部新聞

제1103호 2021년 1월1일~1월7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은 전년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봉사를 실시하였다. 공단은 지난 11월 2일부터 관내 9개동(상암동, 성산동, 망원동, 공덕동, 도화동, 상수동, 신공덕동, 아현동, 합정동) 취약계층(기초생계, 차상위 장애인, 기초 거주 등) 110세대에 방문하여 소방시설(소화기, 단독형 감지기)을 설치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택화재 안전성을 높였다.